

추경 심사 돌입...23~25일 '靑 서별관회의 청문회'

與 “22일 만드시 처리”...野 “문지마 통과 없다”

청문회 증인 채택·세월호 조사기간 연장 등 난항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16일부터 열리지만 야권이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는데다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이를 통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추경안 세부 심사에 나서고 오는 19, 20, 22일 연 추경심사 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일단 새누리당은 추경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한 22일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추경이 조선·해운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현아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국제 발행 없이 하는 것이고 문제가 될 만한 사회간접자본 예산은 다 제외했다”며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국정 계획이 지연되기 때문에 22일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지마 통과’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 일자를 합의했다고 해서 부실한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구조조정으로 파생할 수 있는 실질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비책인지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숙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추경의 원래 취지인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에 합하는지 자세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야는 23~25일 기획재정부와 정부위에서 이틀씩 열리는 조선·해운산업 부실화 책임규명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야당은 이번 청문회를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로 규정짓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해온 정부와 국책은행의 관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반영하듯 여야는 ‘서별관 회의’ 참석 멤버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서별관 회의는 청문회 대상이 아니며 관련자의 증인 채택 문제에 부정적이지만 야당은 최경환 전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수석 등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인 선정은 청문회 7일 이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16일까지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선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지만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도 관련, 여야는 진상 조사를 위한 선제조사 활동은 계속하되 조사위의 조사기간과 조사주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에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18일과 19일로 예정된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관심사다. 김 후보자는 위수지역을 이탈해 대학원 학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철성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와 음주운전 전력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온 文 “호남 민심 지금도 아프다”

“정권교체 믿음 드릴 것”...‘1948년 8·15 건국절’ 주장 반헌법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총선 전후 자신과 당에 대한 호남 민심 이반과 관련해 “아팠고 지금도 아프다”면서 “정권교체를 생각하면 적절할 때가 때를 제대로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최영호 남구청장 모친의 빈소가 차려진 광주시 동구 금호장례식장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남 민심이 다가가는 노력을 하고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드린다면 (호남이) 다시 지지해 주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외출 중 광주 시민들이 버스를 빌려 양산 자택을 찾았다가 연락자를 남긴 ‘포스트잇’을 붙여두 만난 일화를 소개하며 “그분들이 정치인만 만나지 말고 시민들을 만나달라고 요구해 그쪽으로 신경 쓰고 있다”며 호남 민심의 소용 노력도 부각했다. “알게 모르게 광주를 다녀가 여러분을 만났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더민주의 8·27 전당대회 전망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말을 아꼈다. 범주류로 분류되는 김상곤·추미애 후보 등의 이른바 문심(文心) 경쟁에 대해서도 “요즘 그래서 서울도 못 간다”고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우리로서는 정권교체보다 더 절박한 과제가 없다. 국민의 마음도 간절하고 그 간절한 마음이 총선때 표출된 것 같다”며 “높이산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새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7일 전남 목포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 평화콘서트의 광양 애국지사 황원선 생생 생가 방문 이후 1주일만에 다시 호남을 찾았다. 빈소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최 구청장이 낙선한 지난 13일 광주시장 위원장 선거 결과 등을 화제에 올리며 1시간가량 머문 뒤 양산으로 돌아갔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5일 일각에서 제기되는 ‘1948년 8.15 건국절’ 제정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베진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제7주년 광복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즘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 건립됐으므로 그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 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독도는 우리 땅” 제7주년 광복절인 15일 독도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 3년만의 독도 방문

“日 항의 어이 없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15일 광복절을 맞아 독도를 방문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헬기를 타고 독도로 이동해 독도를 방문했다.

현직 의원들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이후 꼭 3년만이다. 광복절 전날 항일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손녀인 새누리당 김을동 당시 의원이 여성 당직자 30여 명과 함께 찾은 게 마지막이었다.

의원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독도 방문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자 “고유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단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일본이 과민하게 반응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에는 새누리당 박명재·성일종·강효상·김성태(비례)·이종명·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황희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초당파적으로 함께했다.

이날 의원들은 헬기를 타고 독도에 도착해 가장 먼저 독도경비대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독도경비대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내부반에 태극기를 전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민주 광주시당원장에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형석 광주 북구 을 지역위원장이 당선됐다.

15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민주 광주시당 정기대의원대회 현장투표와 권리당원 전화자동응답(ARS) 투표 결과, 전체의 56.90%인 2115표를 획득, 1282표(43.04%)를 기록한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총선 후보 출신 지역위원장들이 추대할 이 후보와 현직 지치단체장인 최 후보 간 양자대결 구도로 펼쳐져 관심이 쏠렸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통합의 힘으로 더민주 광주시당이 국민의당을

앞서고 정권교체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16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문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 5월 영령들에 대한 헌화·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엔 광주시당 회의실에서 더민주 광주시당 혁신방안에 대한 당직자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한편 순천 출신인 이 당선인은 순천고와 조선대를 졸업한 뒤 광주 시경제부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더민주 부대변인, 광주시의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



국민의당 대표 선출 당원 직선제로

18일 전체회의서 의결...‘귀국’ 안철수 후보 주목

지지를 하락 등으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 확보에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당 대표를 전 당원의 투표로 뽑는 직선제 도입을 추진하는가 하면 회계 내역 공개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5일 국민의당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최근 당 대표 등을 선출할 때 전 당원이 1표씩을 행사하는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르면 오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한때 패자가 논의됐던 기존 대의원제는 존치는 하되 권한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행 정당법이 반드시 당원 대의기구를 두도록 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비중을 조정해 사실상 1인 1표제로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오는 27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여론조사 25% 비중으로 대표를 뽑는다.

또 국민의당의 경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를 기치로 등장, 대안세력을 자임해왔다는 점에서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대표 선출이라는 다소 파격적이고 실험적인 시도를 통해 기존 정치 질서와의 차별화를 꾀하려 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의당은 지난 12일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회계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지연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당사상 처음으로 매달 국민 앞에 회계보고를 한다. 이것 자체가 혁신”이라며 “정당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열릴 동안의 미국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추후 어떠한 메시지와 행보를 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